

국어 1등급 컷 지난해보다 8점 상승한 92점 예상

광주시교육청·진학부장협의회 수능 가채점 분석

수학 가 92점·수학 나 84점…영어 1등급 비율 7% 달할 듯

한국사 난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과탐 일부 어렵게 출제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0대입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원 가능대학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수능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영역 1등급 예상 컷트라인은 시험 직후 발표된 입시기관의 예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대입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광주지역 수험생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어 영역 1등급 컷은 92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수능 직후 국내 입시기관들이 내놓은 91~92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불수능'을 유발했던 지난해 1등급 컷이 84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무려 8점이 나 상승한 것이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돼 1등급 예상 컷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92점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수학 나형은 어렵게 출제되면서 지난해 등급 컷 88점보다 낮은 84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어 영역은 어렵게 출제됐던 전년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 속에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은 7% 정도로 예상됐다.

한국사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도가 소폭 상승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9개 과목 중 2개 과목(물리와 사상, 한국지리) 1등급 컷은 50점 만점이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별력이 높은 경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도 1등급 컷이 47~48점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실재점 이후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학탐구는 물리 I과 지구과학 I이 전년 대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구과학 I은 1등급 컷이 42점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다.

결론적으로 수학 나형, 과학탐구 일부 과목이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국어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지만 여전히 난도가 높아 변별력을 갖춘 수능으로 평가됐다.

광주지역 진학부장들은 정시 지원에서는 대학별 점수산출 방법을 고려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결시생이 11.16%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도 추후 실재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시교육청은 19일과 12월 11일 오후 3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수능 결과 분석과 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12월 16일부터 5일간 30여 명의 진학상담 전문교사들의 '정시 집중 1대 1 대면상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희망 학생은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내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

◆2020 수능 가채점 참고자료-인문계열

□ 서울 주요대학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서울대	가	경영대학	58	291
	가	경제학부	50	291
	가	정치외교학부	16	288
	가	심리학과	9	288
연세대	나	경영학과	111	286
	나	경제학부	66	285
	나	언론홍보영상학부	16	285
	나	정치외교학과	29	284
고려대	나	경영대학	44	286
	나	경제학과	18	285
	나	미디어학부	7	285
	나	정치외교학과	10	284
서강대	가	경영학부	88	278
	가	경제학부	56	278
	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36	277
	가	사회과학부	20	277

□ 전남대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나	영어교육과	9	252
가	국어교육과	8	249
가	행정학과	19	247
가	영어영문학과	9	244
가	경영학부	44	242
나	경제학과	19	240
가	역사교육과	8	239
나	심리학과	5	238
가	교육학과	3	238
나	유아교육과	3	238
가	자율전공학부	7	237
가	신문방송학과	10	236
나	윤리교육과	3	236
나	정치외교학과	7	234
가	지리교육과	8	233
나	국어국문학과	10	232

□ 조선대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나	영어교육과	11	232
나	국어교육과	11	227
가	경찰행정학과	8	226
나	교육학과	7	217
가	행정복지학부	16	212
나	특수교육과	11	211
가	영어영문학과	21	210
가	상담심리학과	7	210
나	중국어문화학과	2	200
가	신문방송학과	9	199
가	공공인재법무학과	20	196
가	법학과	16	195
나	경영학과	52	194
나	무역학과	17	193
가	역사문화학과	11	191
나	경제학과	23	189

◆2020 수능 가채점 참고자료-자연계열

□ 서울 주요대학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서울대	가	의예과	30	297
	가	수리과학부	6	286
	가	화학생명공학부	22	285
	가	전기정보공학부	39	285
연세대	나	의예과	20	292
	나	치의예과	20	286
	나	전기전자공학부	65	280
	나	화학생명공학부	25	279
고려대	나	의과대학	15	292
	나	사이버국방학과	12	283
	나	화학생명공학과	7	279
	나	전기전자공학부	19	279
서강대	가	화학생명공학전공	33	272
	가	수학전공	15	271
	가	기계공학전공	24	271
	가	전자공학전공	33	270

□ 전남대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가	의예과	37	284
가	의예과(지역)	13	284
가	치의학과	5	279
나	수의예과	16	270
가	간호학과	9	256
가	수학교육과	9	254
가	전기공학과	16	248
나	생물교육과	4	246
나	화학교육과	4	244
가	기계공학부	17	243
가	통계학과	6	241
나	화학학부	55	239
나	수학과	9	238
나	소프트웨어공학과	16	238
가	생물공학과	7	237
가	신소재공학부	14	236

□ 조선대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가	의예과	34	282
가	의예과(지역)	22	282
가	치의예과	24	279
가	치의예과(지역)	8	279
가	간호학과	35	238
나	수학교육과	10	226
가	전기공학과	17	221
나	생물교육과	5	208
나	화학교육과	5	206
나	식품영양학과	10	205
나	화학과	9	204
가	기계공학과	53	203
나	의생명과학과	9	202
나	컴퓨터통계학과	6	201
가	자유전공학부	44	200
나	지구과학교육과	5	199

등굣길 느닷없이 폭행 당한 초등생

전주서...경찰, 용의자 추적

전북에서 등교중이던 초등학생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A군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 남성은 돌이 빗나가자 A군에 다가가 주먹을 수 차례 휘두르고 달아났다. 남성은 인도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재질의 보도블록에서 떨어진 조각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폭행으로 충격을 받았

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용의자의 나이가 청소년 정도로 보인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채무 갈등 후배 흥기로 찢른 30대 살인미수 혐의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자신과 채무갈등을 빚어온 후배를 흥기로 찢러 살해하려 한 3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길거리에서 B(37)씨의 옆구리를 흥기로 한

차레 찢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선후배사이로 자신과 지인 등이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빌려준 10억 원을 B씨가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터넷 소포털에서 주문한 흥기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B씨를 자

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부락을 받아 흥기를 다른 차량에 숨긴 C(34)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해물질 기름 세정수

몰래 버린 탱커선 선장 입건

여수해경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와 기름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제주선적 T호(1912t, 기름·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56)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며 선박 내 화물 탱크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폐놀·벤젠·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t과 기름 세정수 약 36t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A씨는 배를 기준을 어진 채 항구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위에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해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전 조선대 교수 점유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교수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광진구 한 주점에서 여제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선대 법인은 지난 6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소 9일만에 여성 속옷 절도



○…출소 9일만에 여성속옷 등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상습절도

혐의로 절창형.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분께 광주시 서구 광전동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속옷 5벌이 든 의류인 여성의 손가방을 훔치는 등 14일까지 복구와 서구 일대 빈집에 들어가 7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포함한 각종 의류와 전자제품까지 훔쳤다는 것.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 달 2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